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제1회 선재역사문화탐방-캄보디아

# 작은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부처님 나라

동남아 불교국가 중 앙코르 문명을 꽃 피운 나라. 하지만 오랜 내전과 갈등 속에서 한국의 1960년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캄보디아로 어린 불자들이 '나'를 찾는 기행을 다녀왔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1월 20~27일 캄보디아, 태국 등지에서 '자신과 세상의 당당한 주인이 되자'를 주제로 제1회 선재역사문화탐방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과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을 비롯해 1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어린이들은 <화엄경>에서 53선지식을 찾아 길을 나섰던 선재동자처럼 일점 내내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자신에게 묻고 자신과 세상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길을 열어가기에 열원했다.

일행은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도착했다. 왕궁과 왓프놈 사원, 국립박물관, 킬링필드 역사 현장 등을 둘러보면서 수도라고 하기엔 초라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베어든 역사문화의 현장을 견학했다.

가는 곳마다 "기브 미 원 달라"를 외치는 어린 꼬마들의 애처로운 눈빛에 서글픈 마음도, 애잔한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들의 삶을 내 자신의 잣대로 행복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었다. 일행은 그저 그들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왓프놈사원에서 사람·생명·평화의 길을 열원하며 울린 108배는 일행에게 언제 어디서든 불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일행은 투어슬랭 형무소(옛 고등학교)에 들러서는 크메르루즈의 잔악한 고문과 학살의 모습들을 살필 수 있었다. "그 어떤 이념과 가치와 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며, 못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사는 연기적인 관계가 아닐까?" 일행은 생각했다.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진정 붓다의 길이 됨을 확인했다.

프놈펜에서 씨엘립까지는 다섯 시간이 걸렸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캄보디아를 실현해가는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에 들었다. BWC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산하 로터스월드가 운영하는 아동센터이다. 드넓은 잔디밭, 아름다운 연못, 단정하게 자리 잡은 아이들의 숙소와 식당, 진료소,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법당에 이르기까지 BWC에는 1만5000여 평 부지에 아이들의 천국이 펼쳐져 있었다. BWC센터 방문 후 일행

은 부영중학교와 르위아초등학교로 이동했다. 부영중학교는 부영건설이 건립한 학교로서 현재 1·2학년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실이 없어 교사나 학생들이 건물 뒤에 가서 불일을 보고 있는 실정이었다.

부영중학교 운동장에는 일행이 지원한 학용품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과 선운사 주지인 법만 스님이 부영중학교 교장선생님에게 학용품과 축구공과 줄넘기 등을 전달하자 학생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이어졌다. 이어 일행이 정성을 모아 4칸짜리 화장실을 짓기로 하고 기공식을 진행했다. 한 달여 공사를 마치면 전교생의 근심걱정을 풀어주는 해우소가 탄생하니 참으로 기쁘뜻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르위아 초교와 인근 마을에도 학용품과 생필품을

## 선재동자 되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화두

## 부영중·르위아초에 학용품 지원... 내년 네팔

전달했다. 어려운 생활여건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이들을 보며 일행은 생각했다. "행복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데 있지 않다"고...

1주일 여가 걸려야 모두 볼 수 있다는 앙코르와트를 하루만에 살펴봤다. 바이온 사원에서 관세음보살의 형상의 사면석불에는 모두 감탄사를 쏟아냈다. 일행은 톤레삽 호수의 수상가옥들을 보고 BWC 속으로 돌아와 캄보디아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이튿날, 캄보디아를 떠나기 전 일행은 BWC센터에 기념식수를 했다. 그리고 태국으로 떠났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에서 태국으로 도보로 향했다. 태국에서 일행은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200m가 넘는 거대한 바위에 새겨진 황금암각불을 진전 후 108배를 올리기도 했고, 방콕의 2층 버스도 타보고, 피타야에서는 물놀이도 했다.

한편,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매년 여름 어린이생태학교와 더불어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코자 선재역사문화탐방을 열고 있다. 제2회 선재역사문화탐방은 2011년 1월, 히말라야왕국이 펼쳐진 네팔로 떠날 예정이다. (062)223-3623

이해모(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선재역사문화탐방 총괄진행)



④ BWC센터에서 법일·법만 스님 등 일행이 기념식수하는 모습.  
② 일행이 크메르루즈의 잔악한 고문·학살이 기록된 투어슬랭형무소를 돌아보고 있다.  
③ 부영중학교를 찾은 일행이 학용품 등을 전달하고 찍은 단체사진. 학용품을 받아 찬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표정이 밝다.  
④ 캄보디아 왕궁 앞에서 일행은 권력의 무상함을 생각했다.

